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 ‘함께장터’

시, 골목상권·전통시장·노동자 기 살리기 등 3가지 분야 다양한 사업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의 따뜻한 소비를 이끌고, 현명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계속되는 정국 혼란 속에 잠가화된 경기침체와 생활물가 상승 등 시민들의 경제 부담과 지역상권의 어려움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면서 “전주시는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의 첫걸음으로 기업과 시민, 공공기관,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 ‘함께장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민철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유장명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심성욱 전주시 상인연합회장, 이운영 전주산업단지협의회장 등이 함께 참석해 함께장터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추진되는 ‘함께장터’ 프로젝트는 △골목상권 살리기 △전통시장 살리기 △노동자 기(氣) 살리기의 3가지 분야에서 다채로운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골목상권 살리기의 경우 기업과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소비 촉진 행사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3월에는 중소기업과 관련기관 임직원이 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일부 수익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기업이 이끄는 소비와 나눔잔치’가 펼쳐진다.

특히 현재까지 통합 의사를 밝힌 피치케이블과 (유)코스트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대한드론축구협회, 휴비스, 전주여성기업경영인협회 등 11개 기



우범기 전주시장은 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시민, 공공기관,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 ‘함께장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업·기관은 각각 매칭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함께 주변 식당을 찾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착한 소비에 나선다.

이어 4월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역 골목상권을 방문하는 ‘혁신공공기관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가 진행되고, 오는 5월에는 시민 플라마켓과 소상공인이 함께 여는 ‘전주 이팝나무장터’가 개최될 예정이다.

여기에, 오는 6월에는 골목상권별 특색 있는 소비 촉진 이벤트 및 문화행사 등 다양한 ‘전주 골목상권 드림캠페인’이 열리고, 9월에는 사회책임, 바

이전주, 증증장애인, 시니어클럽과 전주푸드 생산품을 한지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한가위 맞이 함께 더 큰 장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는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도 연중 꾸준히 전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부터 매월 자생단체 및 봉사단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에는 기독교와 전주교, 원불교, 불교 등 4대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4대 종교와 함께 장보기 행사’도 추진된다.

시는 이러한 다양한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아가도록 힘을 계획한다.

끝으로 ‘노동자 기(氣) 살리기 사업’은 이동노동자와 프리랜서 강사, 콜센터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을 위한 응원 프로그램으로, 분기별로

추진된다.

노동자 기 살리기는 우선 오는 10일 이동노동자 캠퍼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기부금으로 브런치와 음료를 제공하는 ‘함께 브런치 START UP!’으로 시작된다. 첫 번째 행사는 더블류엠어시(대표 김우찬)와 연을담다(대표 임기환), 홍시공(대표 유진솔), 파이토리서치(대표 김연준), 디프리(대표 고건우), 바이오드(대표 강민) 등 전주시 소재 스타트업 6곳이 후원한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 선결제한 후 브런치와 음료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앞으로도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 ‘함께장터’의 세부사업을 널리 홍보해 참여 기업과 단체, 공공기관 등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한편, 이들의 참여가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소비도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우리는 함께 소비하고 함께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 ‘함께장터’ 프로젝트를 통해 착한 소비, 현명한 경제공동체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전주지역 6개 종합사회복지관과 전주청소년센터, 청년식탁 사잇길 등 8곳에서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위험 대상자 발굴을 위해 누구나 라면을 기부하거나 먹고 갈 수 있는 ‘전주 함께라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찾아서 커피와 도서를 즐길 수 있는 공유 공간인 ‘전주 함께라면’도 운영하고 있다. ‘함께장터’는 지역사회에 역량을 모아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는 ‘전주 함께 시리즈’의 세 번째 프로젝트이다.

/김옥기 기자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

북전주세무서,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표창장 수여

북전주세무서(서장 최은경)는 지난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건전 납세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와 국제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층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전수하는 등 뜻깊게 진행됐다.

이날 북전주세무서 관내 더세움병원(대표 양충용)이 기획재정부 장관상, 주식회사 소유산업개발(대표이사 김성화)과 프리미엄저피오 유한회사(대표이사 이현상)가 국제정장표창을 수상했다.

또 유한회사 전주상사(대표이사 이우대)가 광주지방국세청장상, 서전주서비스(대표 오춘선)가 북전주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세정협조자로는 세무사 이재선 사무소 이재선 세무사가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최은경 세무서장은 “납세권의 제고와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제 실현이라는 중점과제 추진에 모던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서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성실납세문화 조성 행사를 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는 33번째(3월3일), 59번째(제59회) 방문객에게 축하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했다.

국제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와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시 2~3년간 납세담보(5억원) 제공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존경받는 사회구현을 위해 모범납세자 증명을 교부하여 공영주차장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운동하며 포인트 쌓는 ‘튼튼머니’ 제공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계해 체육시설 이용객들에게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를 제공한다.

5일 공단에 따르면 튼튼머니는 체력진단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 튼튼머니 포인트를 적립하고 스포츠용품 구매하거나 병원, 약국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서비스다.

완산생활체육공원(인공암벽장, 실내 테니스장)과 전주실내배드민턴장 2곳에서 튼튼머니를 적립할 수 있다. 운동을 시작할 때 한 번, 30분 운동 후 끝날 때 한 번 QR코드를 스캔하면



1000포인트가 적립된다. 하루 1회, 주 3회, 연 40회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튼튼머니는 1000포인트 단위로 스포츠 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튼튼머니 서비스는 12월 21일까지 제공된다.

/김옥기 기자

송천1동, 우리동네 행복꾸러미 밀반찬 나눔 사업 추진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 주민센터(동장 전지현)는 5일, 2025년 동네복지 특화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세대에 반찬 꾸러미를 전달하는 ‘우리동네 행복꾸러미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송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성경훈)와 함께 추진하는 나눔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추진 예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10세대를 선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반찬 꾸러미



를 전달하게 된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